

대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영화속 표현의 자유'

대학생의 시각에서 영화속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담긴 책 '영화속 표현의 자유' (전북대 출판문화원)가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에게 소개됐다.



지난 2014년 학부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학과 수업에 사회 정의에 대해 발표·토론한 20개 주제를 묶어 출간한 '예코세대가 다시 쓰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학생 손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책이다.

특히 전북대가 학생들에게 직접 책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벌레 기르기 프로젝트'에서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이 1위를 차지하며 대학의 출판지원금을 받아 출간했다는 점에서 대학과 지도교수, 학생의 열정이 조화를 이뤄 탄생한 작품으로 의미가 깊다.

영화는 문학·연기·영상·음악·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서 그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되고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종 영화예술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다른 법익, 즉 제3자의 재산권, 명예를 비롯한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이 '영화속 표현의 자유'라는 책을 내었다. 사진은 책 표지(왼쪽)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오른쪽).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 책 '영화속 표현의 자유' 내놓아

인격권, 외설시비, 음란성과 관련한 청소년의 보호 등과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명예훼손, 외설시비, 과도한 상업성, 사회적 논란 등과 관련한 영화를 소재로 판례 등을 통해 학생 시각에서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명한 법이론학 서적이다. 저술에 참여한 14명의 학생들은 각자 표현에 자유에 대한 주제를 정해 명예훼손이나 창작의 자유, 외설, 인격권, 제한상영 제도 등 민감하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해 영

화를 사례로 제시해 다양한 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모토로 개최되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저술에 참여한 학부생들과 변호사, 영화인들이 함께 '영화 속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북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이목을 끈다. 허강무 학부장은 "이 책은 전북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인 '모험인재'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타인과 소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부안수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

부안수협(조합장 김진태) 조합원 장학금 전달식이 15일 본점4층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자녀 48명에게 24백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김진태 조합장은 조합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신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하는 임직원의 의지이며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 깊은 의미의 행사가 더 확대되어 수산가족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하서면, 이장단협의회와 함께 인구늘리기 간담회

부안군 하서면(면장 문숙자)이 15일 이장단 협의회(회장 황선관)와 함께 공군 8351 부대를 방문하여 부안군 인구 5만7,5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의 주수이전을 부탁하고, 협조를 약속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부안군 인구 늘리기의 추진배경 및 그 필요성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자리였으며, 인구증가는 부안군 전체의 핵심 과제임을 자각하고 민간군이 교류하고 협력하여 부안군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오는 5월 4일부터 3일 간 관내에서 개최되는 부안마실축제에 홍보하여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장수군 산서면, 전주시 동산동과 자매결연 협약

장수군 산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난 14일 자매결연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산서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장, 지역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서면은 이날 협약이 두 지역 간 공생 발전과 서로 간의 협력 및 우호적인 친선관계 유지 및 화합 유도를 통해 인적·물적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를 통해 상호 지역사회 공헌 및 공동발전 모색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경찰, 찾아가는 '뗏다방' 피해예방 맞춤 특강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부안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란 슬로건을 걸은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가 '뗏다방'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교통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현신 서장을 비롯하여 지능범죄수사팀장, 교통관리계장 등이 참여해 남주노인대학 어르신들과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한 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피해예방에 대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과 대화 시간을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피해예방 맞춤 특강을 가졌다. 찾아가는 맞춤 특강에 경찰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의 눈 높이에 맞춘 각종 피해예방 자료를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일종이다. 강 서장은 부안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교통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번기를 맞이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안서는 지난 2월말부터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 보호를 위해 '빛 반사 바람막이 점퍼' 1,300여 점과 '신발 반짝 반짝' 1만6,500점을 제작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배부해 교통사고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무주경찰, 대선 앞두고 선거사범수사상황실 설치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선거사범수사상황실 설치 및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수사와 지능팀 사무실 앞에서 15일 서장·수사과장 등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상황실 운영은 선거종료시까지 24시간 단속체계 운영하여, 금품살포 혐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경찰, 불법선거사범 단속 강화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에서는 15일 수사과내에 선거상황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개최하고 다가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각종 불법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품·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상황실과 함께 선거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의회, 진도 팽목항 방문 세월호 희생자 추모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의원 일동은 14일 세월호 팽목 분향소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했다. 정읍시의회는 세월호 참사 3주년에 즈음하여 그날의 아픈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면서,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세월호 진상 규명되어 온 국민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팽목항을 찾았다고 밝혔다. 유진섭 의장은 "304명의 꽃다운 생명이 저버린 이곳 팽목항에 다시 서니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한 선체 인양과 진실 규명을 통해 희생자 영혼이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그날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서 봄맞이 대청소 실시

완주군 운주면사무소(면장 한신호)와 대둔산상가변영회(회장 권광석)는 15일 대둔산 상가 주변과 주요 도로변 등에서 봄맞이 대청소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봄맞이 대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환경지킴이라는 주민 참여의식 확산과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등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고자 상가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돼 실시됐다. 앞으로도 운주면은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29개 마을로 확대해 겨울철 방치된 쓰레기와 적치된 영농 폐비닐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 청정 운주면을 만들기로 했다. 한신호 운주면장은 "그동안 상가변영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환경정화활동을 상가변영회와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롯데백 전주점, 전주시내 노인복지시설 방문 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5일 새봄을 맞아 전주 인보 노인 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사랑백봉사단'은 인보 노인 복지관에 주방식기 목은때 청소와 노후된 주방용품들을 새로운 식기로 교체해주고 약 40여명의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롯데백화점 '사랑백봉사단'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매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세계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신세계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복지적·의료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박승택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과 김한주 신세계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재용 기자

김제 흙플러스 나누미 자원봉사단, 태극기 교체 활동

김제시 흙플러스 나누미 자원봉사단은 15일 시민운동장에서 노후화 된 태극기를 정비하는 '나라사랑·김제사랑 실천행사'를 펼쳤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낡고 훼손된 태극기 교체 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국가의식 교육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를 통하여 자원한 김제시 흙플러스 나누미 자원봉사단 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노후화된 태극기 1,000여 개를 정비 및 교체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준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효지지사 010-9845-9335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